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은 공감 與 “사후 규제” 野 “사전에 감시”

‘온플법’ 논의 재점화

한차례 일단락됐던 ‘온라인 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이 탄핵정국을 맞아 재소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플법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19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이룸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의견을 냈다. 성명서는 올 들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안이 플랫폼법의 우려스러운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낸 데에는 같은 날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 비공개 공청회가 계기가 됐다. 공청회는 국회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경화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모두 플랫폼의 독점 및 소비자·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등과 관련된 법안이다.

정부·여당 안과 야당 제정안 간 차이는 규제를 사전, 또는 사후로 할지에 대한 차이이다. 정부·여당 안은 사후규제를 골자로 일정 수준의 반칙 행위가 일어난 기업에 대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 반면 야당안은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시장 독점적 기업으로 사전 지정해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지난 정권부터 논란이 계속됐다. 문재인 정권이던 2021년 국정감사 때 처음 논란이 인 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9월 국회 소동관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실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당시 모습. /참여연대

정무위 공청회서 관련법안 논의
美 상공회의소 ‘공개적 우려’ 표명
“플랫폼 지배력 강화, 소비자 피해
온플법, 종합적 규제 마련해야”
“작년 네이버 법인세, 구글의 30배
과도규제, 생태계·소비자 피해”

특히 주요 기업들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사건이나 문어발식 경영이 문제시 될 때마다 소비자와 직원, 입점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치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모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과거에 스스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의 거래중개행위에 대해 종래 납품을 전제하는 유통업법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는 한국 IT 빅테크 기업의 현실

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해외 초 대형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커졌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주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법인을 본사 서비스 대행으로 두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155억원을 냈는데, 네이버는 여기에 30배에 달하는 495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이 9월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스스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131조 원에 달한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온플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했지만, 국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의 세밀함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는 카카오(15위), 네이버(23위), 쿠팡(27위)이 있는 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오징어게임2·조명가게 등 기대감 시들했던 OTT 시청, 반등 꺾인다

계엄사태 이후 OTT방문자 ‘뚝’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탄핵 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뉴스 시청률이 급증하며 국내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방문자수가 줄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주요 OTT들은 기대작을 연일 개봉하며 반등을 꺾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조명가게’를 개봉하며 반등에 성공했으며 ‘오징어게임’ 시즌 2 개봉을 앞둔 넷플릭스의 시청의 향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넷플릭스 일 순 방문자 수(DAU)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1일 271만 9519명에서 선포일인 3일 249만3372명으로 약 8% 줄었다.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238만2528명으로 전날보다 2만명 가량이 덜 방문했다. 티빙 방문자 수도 1일에는 146만9374명에서 4일에는 142만5132명으로 소폭 줄었다.

계엄이후 뉴스시청률 최대 5%p ↑

디즈니플러스 ‘조명가게’ 공개에 방문자 42만여명, 월초 대비 급등

넷플릭스 ‘오겜2’ 오는 26일 개봉
인지율·시청의향 역대최고치 기록

이 가운데 쿠팡플레이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일 87만8767명을 기록했던 일 순 방문자 수는 비상계엄 선포일인 3일 68만9387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173명에서 107만3479명으로 떨어졌다.

디즈니플러스는 1일 38만5090명에서 3일 31만5496명으로 방문자 수가 약 19% 줄어들었으며 왓차는 1일 6만 8605명에서 3일 6만475명으로 약 13% 감소했다.

반면 뉴스 시청률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상과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이날 1일 3~6%대 수준을 기록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에는 5~11%대로 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부터 OTT들은 기대작을 연일 공개하며 반등을 꺾고 있다.

실제로,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4일 강풀작가의 ‘조명가게’를 공개하며 방문자 수가 급등하고 있다. 이날 방문자수는 지난 1일보다 훨씬 많은 42만 2932명을 기록하며 구독자수를 모았다.

조명가게는 강풀작가의 웹툰이 원작

으로 공개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또 디즈니플러스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최고 흥행작인 ‘무빙’을 MBC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OTT 콘텐츠가 공중파 방송에 방영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를 기반으로 디즈니플러스는 ‘무빙2’를 제작키로 결정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가장 주목되는 OTT는 넷플릭스다. 글로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다. 오는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2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최대 기대작이다.

이에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는 구독자 3명 중 1명은 오징어 게임2를 보기 위해 신규 구독을 고려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공개 전부터 인지도와 시청의향률 모두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개 4주(11월 30일~12월 1일) 전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인지도 88%, 시청의향률 62%를 기록한 뒤, 일주일 후(12월 7일~8일)에는 각각 91%, 65%까지 치솟았다.

오징어게임 2는 구독자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넷플릭스 비구독자 중 오징어 게임2가 론칭되면 넷플릭스를 구독·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독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명 중 1명(32%)에 달했다.

특히 오징어 게임 2의 개봉을 앞두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미국 나스닥 94.65% 주가가 상승한 넷플릭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장중 941.75달러를 찍으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징어 게임2는 정식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시상식 최우수 TV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등 평단의 호평이 기대시리를 자극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OTT인 티빙도 한국프로야구 중계를 내내에도 지속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티빙은 지난 4월 프로야구 리그 개막과 함께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 10월 기준 8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해외 축구 중계로 이용자를 끌어올린 쿠팡플레이는 드라마를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그간 해외축구 중계와 ‘SNL 코리아’로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류승범·배두나 주연의 드라마인 ‘가족계획’도 공개 1주일 만에 시청률이 225% 이상 급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금감원, 부실 사업장 22.9조 10.9%
상호금융 10.9조, 저축은 4.4조 등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1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유·부실우려 사업장은 22조 9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 정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부실’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의 10.9% (22조 9000억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금융권별로 보면 상호

금융이 10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저축은행 4조 4000억원 ▲증권사 3조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2조 7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실시한 1차 평가에서 20조 9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 대상으로 지정했고, 10월 말까지 이 중 21.4%인 4조 5000억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29.0%로 가장 높은 완료율을 보이며 ▲증권사 20.7% ▲상호금융 17.7% ▲저축은행 16.7%로 뒤를 이었다.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은 “정리·재구조화 계획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경·공매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부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

리·재구조화가 금융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금융사들이 추가로 적립한 총당금은 2조 4000억원이며, 전체 총당금 규모는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PF 고정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2%에서 9월 말 기준 11.3%로 6.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PF 연관채권을 위해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PF 정리·재구조화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업장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티칼리지(LACC)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 팬 이벤트가 열렸다.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이병헌, 임시완, 양동근, 강애심, 이서환, 조유리가 팬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넷플릭스